

Living the

1
2017

LOTUS



Buddhism in Everyday Life

VOL. 136

開祖隨感

끝까지 배례하는 사람

신앙도 익숙해지게 되면 모양은 훌륭할지라도 마음이 따르지 않게 됩니다. 겉모양은 합장하여 상대방을 배례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사사건건 반발을 일삼는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법화경에는 상불경 보살의 예배행이 설해져 있습니다. 상불경 보살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반드시 부처가 될 사람이다」라고 끝까지 믿고 배례합니다.

그러므로 돌을 던지더라도 몽둥이로 때리려 하

더라도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부처가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계속 배례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심한 말을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끝까지 배례합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면 사람은 행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 용솟음치는 것입니다.

개조수감 9 (p132-133)

Living the Lotus
Vol. 136 (2017年1月)

【発行】立正佼成会 国際伝道部
〒166-8537
東京都杉並区和田2-6-1 普門館5F
Tel: 03-5341-1124
Fax: 03-5341-1224
E-mail: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編集責任者: 水谷庄宏
編集チーフ: 金尾江利子
校閲者: 成 淑姫
編集スタッフ: 国際伝道部スタッフ

입정교성회는 1938년 개조 니와노 닛교, 협조 나가스마 묘꼬에 의해창립된 법화삼부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는 재가 불교 교단입니다.

가정,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살려서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는 니와노 니찌꼬 회장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는 물론, 각 계 사람들과 손을 잡고 국내외의 여러 가지 평화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 -Buddhism in Everyday Life- (법화경에 살아- 생활속의 불교)라고 하는 타이틀에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매일 생활 속에 살려서 흙탕물에 피는 연꽃처럼 인생을 풍요롭게 그리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라는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인터넷을 통해 발신하고 있습니다.



會長
法話

착실하고 담담하게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 (庭野日鑛)

대자연으로부터 배운다

「1년의 계획은 원단(元旦)에 있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이러이러한 1년을 만들자」라고 결심을 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산뜻하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초에 굳게 결심한 것도 3일만 지나면 바쁜 일에 섞여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보다는 성과에 무게를 두는 마음이 더 크고, 혹은 새로운 일에 노력하는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날이라도 지붕에 내린 눈은 치워야 하나니」라는 히로나카 핫코트(廣中白骨)의 시가 나타내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실천하는 마음의 여유와 차분함을 되찾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아닐까요. 시간에 쫓기어 효율이나 성과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착실하고 담담하게 해나가면, 거기에 인간다운 생활과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차근차근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자키 준 (岩崎俊)의 「천천히, 천천히 감은 곳감이 되는구나。」라는 시는 자연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게 해줍니다만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의 맛은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하루하루의 착실한 생활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새해가 되면 정월 장식에 사용하는 가녀린 복수초(福壽草)가 생각납니다만 이와 관련된 노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화합하여 한 송이 복수초가 피었고, 이 꽃은 몇 대를 거둬서 피어날 것이니」 (니노미야 손토쿠 (二宮尊徳))

천지자연은 담담하게 시간을 머금고 어느덧 진리의 작용이 조화를 이룰 때 꽃은 자연히 피게 된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에도 착실하고 담담하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뜻을 세우다

눈앞의 손득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고 담담하고 착실하게 해야 할 일을 한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마음이 늘 평온하여 인간으로서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일을 계속하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착실하고 담담하게 산다는 뜻에서는 석존도 그 본보기를 보여준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더욱 특별한 재능이나 기질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불도수행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도우겐 선사((道元禪師)는 「불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재능은 필요 없습니다. 뜻을 일으켜 자신의 분수에 맞게 학도(學道)에 노력한다면 반드시 불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늘 되풀이 되풀이 구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고 일념을 세웠더라도 그 근본이 되는 「절실한 의지」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을 바꿔보면, 뜻을 정해놓고 지금 눈앞에 있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정성을 다해 해결해 나간다면 그 걸음은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 뜻을 정해두면 현상에 일희일우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차분하고 담담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단, 자기가 정한 뜻에 입각한 실천행이라도 사람마다 체각기 자기 분수에 맞게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다, 「지족(知足)」을 실천한다, 혹은 늘 말씀드리는데 「아침인사, 네 하는 대답, 신발을 가지런히 벗는다」는 세 가지 실천도 좋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착실하게 차곡차곡,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게 담담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하여 올해도 즐겁고 기쁜 1년이 되도록 정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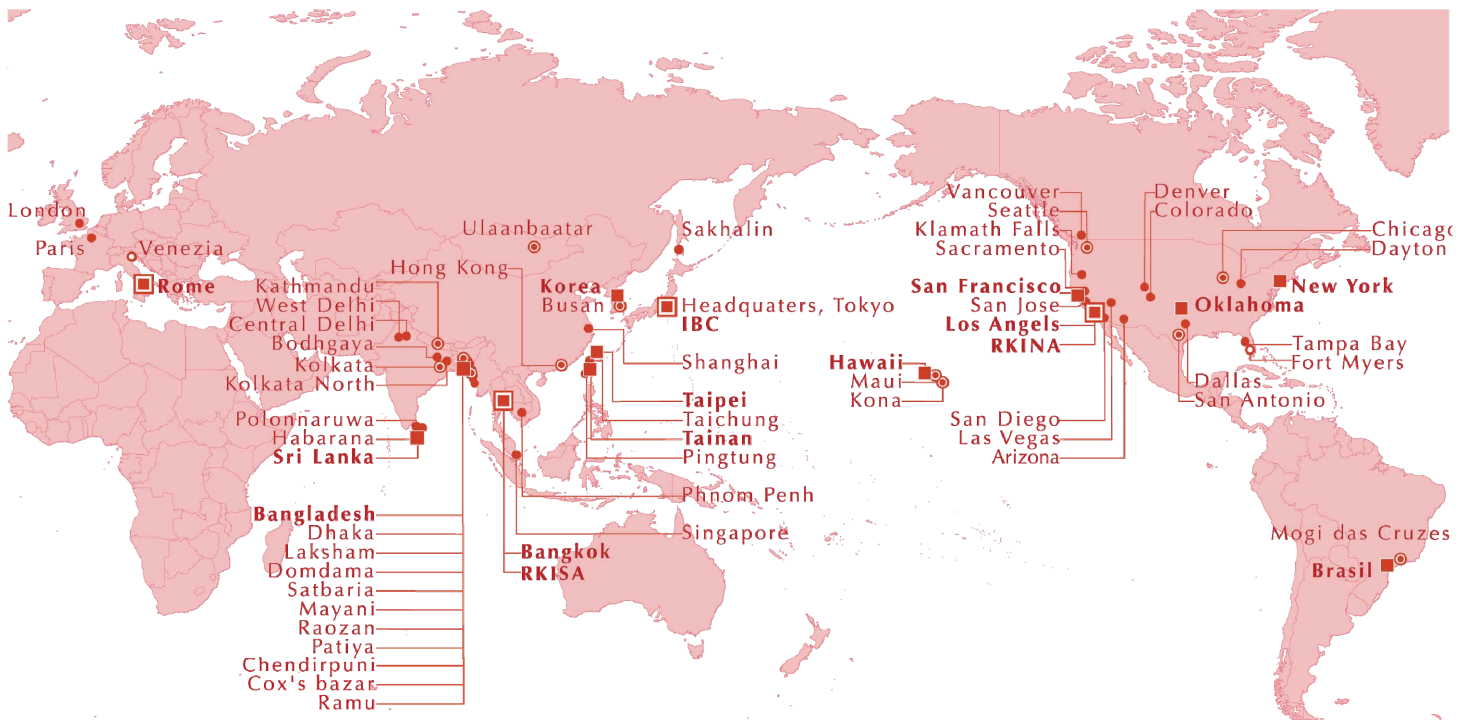
『佼成』2017年1月号より



Living the LOTUS

Please give us your comments!

We welcome comments on our e-newsletter Living the Lotus.
Please send us your comments to the following e-mail address.
E-mail: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BRANCHES 🌸